

제3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 (Ageing in Place)

2023년 7월 11일-12일, 서울로얄호텔(명동)

서문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회를 규정하는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향후 30년 내 세계 60세 이상 인구는 2배 증가하여 21억 명에 이르고, 80세 이상 인구는 3배 증가하여 약 4억 2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WHO 2022). 전 세계 기대수명은 2019년 72.8세, 2050년에는 77.2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UNDESA 2022).

범세계적 고령화의 가속화라는 추세 속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는 나라는 개발도상국이다. 예를 들면, 2050년까지 예측되는 세계 인구 증가의 절반이 콩고,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탄자니아 등 8개국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UNDESA 2022).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2050년까지 전망되는 세계 인구 증가 절반 이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UNDESA 2022). 즉 2050년에는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의 80%가 저소득 또는 중위 소득 국가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WHO 2022). 개발도상국에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와 정도를 고려할 경우, 그리고 특히 부족한 재정 자원과 열악한 사회기반 시설을 고려할 시 고령화는 이 사회에 더욱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명 연장은 의료 기술과 공중 보건 발전의 의미하나, 이와 동시에 여러가지 사회적 도전을 제기한다. 인류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례 없는 인구학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GAC)는 아셈 회원국 뿐만 아니라 그 외 국가들이 고령화에 대해 인권적 접근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노인의 존엄한 삶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매년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개최한다. 본 포럼을 통해 관련 학계 연구자, 정부/인권위원회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2023년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의 주제는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Ageing in Place)'이다.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란 '요양시설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Davey et al. 2004, 133).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는 노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지원 및 서비스와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커뮤니티와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는 비용이 많이 들고 노인들이 기피하는 (요양)시설 돌봄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며 가족과 친구, 이웃 등 사회적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들의 집 혹은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가마다 재정/물질적 자원과 문화적 가치가 다른 만큼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노인 돌봄 서비스가 (여성)가족 구성원 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젊은 여성 이민 노동자에게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경우 가족 구성원(특히 여성)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여성 이민 노동자에 의존하는 돌봄이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가족 돌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진다. 반면 한국을 위시하여 시설 돌봄이 보편화된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탈시설화가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는 가족 구성원과 공공재정에 지우는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노인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현재 거주지 또는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거주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설 돌봄'과 '가족 돌봄'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는 단순히 특정 거주지에 대한 애착이 아닌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개인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재정 의하는 공간을 보존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는 거주지 또는 집 자체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과 지역사회가 노인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는 주거 시설 뿐 아니라 체육 활동, 사회적 활동, 문화적 교류, 지속적인 교육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및 편의 시설 등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는 보건과 복지의 결합이며 물리적, 문화적 측면 모두에서 집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가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임종 또는 임종에 근접한 시기까지 자신의 집 혹은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존엄한 죽음('웰다잉')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노년기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존엄한 죽음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번 포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를 다루고자 한다.

- 1) 아셈 회원국 및 국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 관련 모범적인 실험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공유하며,
- 2) 존엄한 죽음('웰다잉')을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와 관련된 주요 논의와 이슈를 소개하고 논의하며, 아시아와 유럽 내 다양한 국가에서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가 어떻게 이해되고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 3) 노인인권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기울여야 하는 추가적인 노력과 방안을 모색한다.

세션 주제

이번 포럼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스페셜 세션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포럼의 정기 세션인 시민사회 토크콘서트(2세션)에서는 아래로부터 노인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제비정부기관(INGO)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며 얻은 경험을 공유하고 모범사례를 다른 지역과 나라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모든 세션은 좌장에 의해 진행되며 1-3세션에서는 각 세션마다 4-5명의 연사자들이(각 20-25분)의 발표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다. UNESCAP 스페셜 세션에서는 UNESCAP의 '아태지역 고령화 2022 보고서'의 주요 저자가 발표하고 세명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세션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를 향한 논의와 (정책) 대응
2세션 시민사회 토크콘서트: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를 향한 시민사회 모범사례 및 실험
3세션 웰다잉을 향한 논의와 (정책) 대응
UNESCAP 스페셜 세션 아시아에서의 고령화, 노인인권, 그리고 개발협력

1 세션.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를 향한 논의와 (정책) 대응

1 세션에서는 노인학, 사회학, 법학 분야 학계 연구자 및 전문가가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와 관련된 이슈와 사례를 논의한다. 특히, 이 세션에서는 스웨덴, 호주, 싱가포르, 한국 등 일부 아셈 회원국에서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가 어떻게 이해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발표자는 AGAC 글로벌 자문위원인 스웨덴 Lund 대학교 Titti Mattsson 교수, 돌봄미래재단의 김용익 이사장, 호주 New South Wales 대학 Edgar Liu 선임연구원, 싱가포르 Nanyang Technological 대학교 Sabrina Luk Ching Yuen 교수가 각각 스웨덴, 한국, 호주, 싱가포르의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 사례와 쟁점을 논의한다. 좌장은 Washington St Louis 대학의 박소정 교수가 맡는다.

2 세션. 시민사회 토크 콘서트: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를 향한 시민사회 모범사례 및 실험

시민사회 토크 콘서트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유하는 기회인 만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연사자로 참여한다. 해당 세션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이행된 아셈 회원국 주재 시민사회 단체의 다양한 시도와 실험,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노인 인권에 미치는 영향 및 함의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해당 세션에는 5명이 연사로 참여한다. 연사자는 HelpAge Spain의 Alberto Infante 사무총장, 태국 노인발전재단(Foundation for Older Persons' Development)의 Janevit Wisojongkram 부국장, Age Friendly Ireland의 Mark Harrington 대표, Habitat for Humanity Hong Kong의 Ngai Ming Yip 이사장, 강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내 밝음병원 김종희 원장이다. 2 세션 좌장은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이 맡는다.

3 세션. 웰다잉을 향한 논의와 (정책) 대응

3 세션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의 연장선상에서 존엄한 죽음(웰다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해당 세션에서는 인권 전문가, 생명 윤리학, 사회학 분야 연구자들이 생명권과 사망권에 대한 논쟁과 이의 인권적 관점에서의 함의, 그리고 존엄한 삶과 죽음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된다. 특히 존엄한 죽음과 관련된 질문과 이슈들을 유럽의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독일, 영국의 사례와 안락사에 대한 정책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도, 일본, 한국의 사례와 연계하여 논의한다. 튀르키예 Turkish-German 대학교 Derya Nur Kayacan 교수, 영국 East Anglia 대학교 Angelika Reichstein 교수, 인도 Bhimrao Ambedkdar 대학교 Sufiya Ahmed 교수, 일본 Tohoku 대학교 Atsushi Asai 교수, 서울대학교 서이종 교수가 연사자로 참여한다. 3세션의 좌장은 고윤석 아산병원 교수가 맡는다.

UNESCAP 스페셜 세션: 아시아에서의 고령화, 노인인권, 그리고 개발협력

스페셜 세션은 전 세계적인 고령화, 특히 아시아 태평양/아세안 지역의 고령화 관련 이슈를 다룬다. 개발도상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위 내용 참조)에 대응하여 UN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은 인구 고령화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최근 '아태지역 인구 고령화 2022 보고서'와 '아태지역 기후변화와 인구 고령화: 현황, 어려움, 기회'를 포함하여 여러 고령화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럼에도 개발도상국 당사국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 커뮤니티는 이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개발협력 커뮤니티는 인권을 사업기획, 이행, 평가과정에서 핵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노인인권 원칙에 입각한 노년층을 위한 프로젝트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금번 포럼을 통해 AGAC는 아시아 맥락에서 고령화, 노인인권, 그리고 개발협력을 연계하여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해당 세션에서는 UNESCAP의 '아태지역 인구 고령화 2022 보고서'의 주요 저자로 참여한 Marco Roncarati 사회문제담당관이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과 취지 등에 대해 발표한다. 그리고 3명의 관련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자는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의 Eduardo Klien 동아시아태평양 지역대표, AGAC 글로벌 자문단 위원인 Giang Thanh Long 베트남 국민경제대학교 교수, 그리고 전용호 인천국립대 교수이다. 이 세션의 좌장은 AGAC의 송해영 사무국장이 맡는다

프로그램 및 일정

	7월 11일 화요일	7월 12일 수요일
오전	등록(9:30-10:30) <u>환영사</u> 지은희 (AGAC 회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 <u>축사</u> 김상희 (국회의원) <u>기조연설</u> Bev James (뉴질랜드 공공정책연구소 대표) Srinivas Tata (UNESCAP 국장)	
	점심(11:30-13:00)	등록(12:00-13:00)
점심	세션1 (13:00-15:30) <u>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를 향한 논의와 (정책) 대응</u> 좌장: 박소정 교수 (University of Washington St.Louis) 연사자: Titti Mattsson (Lund University, 스웨덴) 김용익 이사장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Edgar Liu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호주) Sabrina Luk Ching Yue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싱가포르)	세션3 (13:00-15:30) <u>웰다잉을 향한 논의와 (정책) 대응</u> 좌장: 고유석 교수 (서울아산병원/울산대) 연사자: Derya Nur Kayacan (Turkish-German University, 튀르키예) Sufiya Ahmed (Bhimrao Ambedkar University, 인도) Angelika Reichestein (University of East Anglia, 영국) Atsushi Asai (Tohoku University, 일본) 서이종 교수(서울대학교)
	휴식 (15:30-16:00)	휴식 (15:30-16:00)
	세션2 (16:00-18:00) <u>시민 사회 토크 콘서트: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를 향한 시민사회 모범사례 및 실험</u> 좌장: 조영숙 국제연대센터장(한국여성단체연합) 연사자: Alberto Infante (HelpAge Spain) Janevit Wisojongkram (FOPDEV, 태국) *Foundation For Older Persons' Development Mark Harrington (Age Friendly Ireland) Ngai Ming Yip (Habitat for Humanity Hong Kong /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김중희 원장 (강원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 밝음의원)	UNESCAP 세션 (16:00-18:00) <u>아시아에서의 고령화, 노인인권, 그리고 개발협력</u> 좌장: 송해영 (AGAC 사무국장) 발표자: Marco Roncarati (UNESCAP) 토론자: Giang Thanh Long (National Economics University, 베트남) 전용호 교수 (인천대학교) Eduardo Klien (HelpAge International, Asia Pacific)
		<u>폐회식</u> (18:00-18:30) Hye Kyung Lee (AGAC 이사장)